

2019년 6월 23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해)

제2045호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미사기도)

■ 미사전례

- 제 1독서: 창세 14,18-20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 2독서: 1코린 11,23-26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 복음: 루카 9,11c-17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 부속가

21.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전례봉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일	해설		독서
	금주	07:00	김 미카엘	4구역	2구역		수	백 로즈마리	평화의 모후 Pr
		11:00	김 데레사	3반	4반		목	홍 사도요한	성령 기도회
다음주		07:00	백 로즈마리	4구역	2구역	일	금	고 세릴리아	금요 성경반
		11:00	조 프란치스코	4반	5반				



성경의 인물 100 바오로를 버린 피젤로(2 디모 1.15-18)

바오로 사도는 아들과 같이 아끼는 디모테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사도 바오로는 디모테오의 굳은 신앙심과 충실성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썼다. 그리고 신앙고백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복음을 위해 하느님의 고난을 나눌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오로를 버린 것에 대해 인간적인 섭섭함을 토로했다. “디모테오, 그대도 알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피젤로와 헤르모게네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크게 믿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를 중심으로 짧지 않은 3년 동안이나 아시아에 대한 전교에 모든 정성을 기울였었다. 그런데 아시아의 신자들이 바오로 사도의 어려움을 못 본 체하고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피젤로는 바오로 사도의 큰 실망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다.

사도 바오로가 특히 믿었던 피젤로의 배신은 사도 바오로에게 큰 인간적인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었다. 보통 원수나 적의 공격보다 가까운 동료의 배신이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에서도 배신 행위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자행되기 마련이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시해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부르투스여, 너마저...”라고 절규했던 것처럼 동료나 친구의 배신이 얼마나 인간적인 상처가 되는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사도 바오로가 디모테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무렵에는(A.D 66년경)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그리스도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지던 암울한 시기였다. 사도 바오로가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감행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오로의 협조자와 후원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 사람들은 복음 선포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이 과연 살아 계시며,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로마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박해와 탄압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미치게 되자 열심히 신앙 생활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혹독한 박해 동안 수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혔다.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무수한 고초를 겪고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일부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최후를 마쳐야만 했다. 따라서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박해의 고통과 수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는 이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러한 배교 현상은 사도 바오로 주변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다. 즉 사도 바오로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오로의 협조자들이 바오로를 버리고 세상 속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에 너무도 쉽게 굴복했던 지조 없는 신앙인이었던 것이다.

아시아 출신 피젤로도 참 신앙의 깊은 맛을 알기도 전에 신앙을 포기했던 인물이라 하겠다. 그는 참 신앙은 오히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환난과 박해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더 발전시켰다.

사도 바오로에게 등을 돌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나갔던 바오로의 협조자 피젤로는 에페소 교회 출신이었던 것 같다. 사실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제3차 선교 여행 중 무려 3년간(A.D 53~56)에 걸쳐 온 정열을 기울여 세웠던 교회였다. 이 에페소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사목자로서 그 어느 곳보다 더 큰 애정과 열심을 쏟아 부었던 곳이었다. 에페소 교회 출신이었던 피젤로는 사도 바오로로부터 수많은 사랑과 애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피젤로는 이 사랑에 대해 배신으로 보답함으로써 사도 바오로의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던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여러 번에 걸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아시아의 교회를 생각하며, 그 곳의 많은 신자들의 배교를 가슴 아파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오로가 피젤로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그의 배교가 인간적으로 매우 서운한 일일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큰 상처를 안긴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피젤로는 에페소 교회 등지에서 활동한 열심한 봉사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교회의 지위와 봉사의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고 말았다. 이러한 행위는 함께 신앙 생활하는 신자들에게도 여간 큰 상처가 아니었다.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룩한 계획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는 않는다. 진정한 친구 사이의 우정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참 신앙과 거짓 신앙도 박해 때 뚜렷이 구별되기 마련이다. 실로 참 신앙인은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더욱 황금 같이 빛나게 만드는 귀한 경험으로 삼는 사람이다. <평화신문, 제670호(2002년 4월 7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성서못자리 전담)>

성삼 소식

LA교구 2차 헌금(Missionary Cooperative Plan 2019)

- 일시: 6월 23일 주일 미사중
- 후원 하는곳 : The Diocese of Imphal, India

울뜨레아

- 일시: 6월 23일(일) 12:40 성당

마산 교구장(배 콘스탄틴 주교님) 본당 사목 방문

- 도착: 6월 27일(목) 오후 2:50 (KAL 011편) LA공항
- 기간: 6월 27일(목) ~ 7월 5일(금)

2019 견진 성사

- 견진교리특강: 6월 27일(목) 오후 7:30미사 후
: 견진성사의 은총
- 견진예식: 2019년 6월 30일(일) 11:00 교중 미사중
- 주례사제: 마산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주교
- *전례연습 오전 9:00 성당(견진대상자 및 대부모)
- *오전 9:00 영어미사는 없습니다.

사목회의

- 일시: 6월 28일(금) 오후 7:00 101호

LA교구 2차헌금(교황주일)

- 다음 주일(6월 30일)은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Vacation Bible Study)

- 일시: 7월 13일(토) 오전 9시 ~ 오후 3:00
- 대상: Pre-Kindergarten ~ 5th Grade
- 등록비: \$20.00
- 문의: 이 켄마 ☎213-273-6797

중 · 고등부 여름 캠프 2019

- 날짜: 8월 8일(목) - 11일(일)
- 대상: 6th - 12th Grade
- 참가비: \$170.00(7월 7일까지)
\$180.00(7월 31일까지)
\$200.00(8월 4일까지)
- *장소 예약 관계로 환불 안 됩니다.
- 접수 및 문의: 이유진(그라시아) ☎818-209-5856

새 복사단 모집

- 자격: 3학년-5학년(첫영성체한 주일학교 등록자)
- 첫모임: 6월 23일(일) 오전 9:00미사 후, 205호

주일학교 복사단 단합대회

- 일시: 6월 29일(토) 오전 9:30~12:30
- 장소: Moonlight Rollerway-Glendale-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6월 16일	\$17.00	누계	\$486.95
--------	---------	----	----------

타본당 · 단체

일일퍼정

- 일시: 6월 29일(토) 오전 9:30 ~ 오후 4:30
- 강사: 황의현(바오로)신부 (광주 가톨릭 대학교 교수 신부)
- 참가비: \$10.00(점심포함)
- 장소: Sacred Heart Retreat House
(507 N. Granada Ave. Alhambra, CA 91801)
- 주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미주 평의회
- 문의: 조옥희(마리아) 818-653-3313

영성강좌

- 주제: 예수, 우리의 걸음을 아파 하느님에게로
- 강사: 송봉모(토마스)신부(한국 예수회)
- 일시: 6월 29일(토), 30일(일)
- 참가비: \$30.00(하루 \$20.00)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LA)
- 주최: 미 서부지역 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wkclcorg@gmail.com

제25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 일시: 7월 5일(금) ~ 7일(일) 2박3일
- 강사: Fr. Francisco Jin, Fr. Joe Kim,
이창현(비오)신부, 신용문(야고보)수사 신부.
- 참가비: \$160.00
- 장소: 꽃동네-테메쿨라-☎951-302-3400
- 문의: Lucia Joo ☎510-872-1799

황창연 신부와 함께하는 2020년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 기간: 2020년 2월 17일(월)~2월28일(금) 11박 12일
- 예약금: \$500.00(항공예약 환불 불가)
- 모집 인원: 40명 선착순
- 접수문의: 성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951-302-3400

종식 봉사	금주	4구역	소고기 미역국	다음주	5구역
우리들의 정성 (2019. 6. 16 현재)					
교무금	3,780.00	교무금 (19명) 고대준, 구강호, 김정숙, 김주식, 박병호, 박일주, 서정풍, 심재경, 양효준, 여지홍, 오세창, 이규인, 이달근, 이혁주, 임 희, 채효중, 태윤주, 한선영, 한창희,			
주일 헌금	2253.00				
건축 헌금	50.00				
감사 헌금	320.00				
광고비	1,350.00				

본당살림



고려 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옥)	백양 · 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Global Financial & Insurance Life/IRA/사업체/건물/종업원상해/그룹건강 Juliana Jin Kim 818-640-3992 pncglobal@gmail.com Lic#0G10657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장영화 Piano Studio •음대·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MM Degree •대학교수직 및 피아노스튜디오 20년 경험 •각종 피아노 콩쿨 다수 입상 •MTAC & SYMF 멤버 Studio (818) 400-1343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친 정 김 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딩 (213)623-7088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계원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구 본옥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한 & 루시아 김 . M. E. 21씩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야고보) 생명/은퇴연금/로템케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애틀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